이천이십삼년 | 여름호(통권 22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겨레의 창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집중 탐구
국민과 통하는 봄

우리말 보물찾기
옥천 지방의 무뚝뚝한 말속에 깃든 순한 마음들



목차

겨레말

이천이십삼년 | 여름호(통권 22호)









02 겨레의 창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 박성춘

06 집중 탐구
국민과 통하는 봄 · 윤석정

10 심상
'어머니산'의 뒷모습을 볼 날을 꿈꾸며 · 유수

겨레말 탐구생활

14 남녘말 북녘말
프로폴리스와 벌풀 · 오현아

18 뜻풀이 깁고 더하기
백로지 · 최성규

22 우리말 보물찾기
옥천 지방의 무뚝뚝한 말속에 깃든 순한 마음들 · 송진권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합니다.
②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6 겨레말 사람들
김강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좋은 사전'을 만드는 마음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28 이 계절의 책
남북 언어생활 부문의 대중잡지 · 변영수

30 겨레말 소식

32 겨레말 낱말 풀이



2023 통일문화 공감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사업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통일부가 주최하는 통일문화 공감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봄〉에 참가했다.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남북의 말을 잇다'를 주제로 부스를 열고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소개, 남북 국어사전 및 편찬성과 도서 전시, 남북 언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했다(본문 6쪽에서 9쪽).

사진 제공: 이효영

펴낸이 민현식
펴낸날 2023년 8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기획홍보부 02)3275-0815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글 **박성춘** ㈜키인컨설팅 대표



평화·통일 교육의 현재

통일교육은 국민의 통일의식을 높임으로써 남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약 8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남북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통일 무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반공, 안보, 민족,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화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경합하면서도 병존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통일 교육은 사회적 상황 변화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분단과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족 담론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제는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맞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경계의 대상이자 통일의 동반자라는 모순적인 개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균형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바로 평화·통일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협력과 통합의 경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평화·통일 교육은 남과 북의 협력과 통합 경험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협력과 통합의 경험 중 대표적 사례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을 통한 남북 협력의 경험과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통합 경험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최초로 남과 북이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이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으로서 남북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말과 글이라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여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르면 그 목적은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2005. 7.)"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이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 사전"임을 밝힘으로써 남북 언어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25차례 공동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열린 제25차 공동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교류마저 끊어진 상황이지만 남북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개성공단에서는 통일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상호 존중에서 출발하여 공존과 공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였다면 개성공단은 불

>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는 분단된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통일한국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통합, 공존, 상생을 추구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가능하였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조성과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은 차이와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여러 합의서를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56,000여 명이 함께 생활한 개성공단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였으며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많았다.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해 나가며 개성공단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비록 현재는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북 통합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화·통일 교육이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추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실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 남북한 협력과 통합의 가치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루면서 평화·통일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 협력과 통합의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통하여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구성될 때 남북한 민족 공동체 구성원, 남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은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현재부터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공리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와 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는 분단된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통일한국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통합, 공존, 상생을 추구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문제는 빈곤 퇴치, 사회·경제적 정의, 문화 다양성 및 문화 간 대화, 민주주의, 인권, 소비 및 생산, 세계화, 생물 다양성, 재해 위험 감소, 환경의 질적 저하 및 기후 변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일 이전인 현재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계적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남북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의 이익에 따라서 통일 논의를 펼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통합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우리 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는 동시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공존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분단 평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향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평화·통일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통일교육이 남북 협력과 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북 경쟁과 대결 구도에 따른 통일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화된 분단에 이미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과 통합의 경험을 다루지 않고 국가적 거시 담론의 차원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평화와 통일 개념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평화·통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들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남북 협력과 통합의 가치를 이해하고 남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면화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통합은 통일 이전과 통일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통일 이후 우리 사회의 충분조건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평화·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현재의 분단 사실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와 통일 가치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평화·통일 교육은 남북 협력과 통합의 경험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박성춘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미국 아칸소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키인컨설팅 대표이며, 사업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등이 있다.

국민과 통하는 봄

– 겨레말큰사전, 남북의 말을 잇다

글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 겨레말큰사전의 전시·체험 부스 전경

5월 26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겨레말큰사전 전시·체험 부스가 설치됐다. 부스 입구에는 '겨레말큰사전, 남북의 말을 잇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스 뒤편에 위엄 있게 자리한 세종대왕 동상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겨레말큰사전 부스로 들어섰다. 공동회의가 중단된 이후 사업회에서 제작한 《겨레말큰사전》 가제본과 편찬성과를 담은 출판물들을 전시용 탁자에 비치하고 뒷벽으로는 사업회의 해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용 현수막도 부착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스물다섯 차례 열린 공동회의 사진들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대여해 설치했다. 이틀간 통일부가 주최하는 통일문화 공감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코로나19가 대유행한 뒤로 오랜만에 다시 참여하게 된 이번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며,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국민과 통하는 봄

지난 4월, 사업회가 2023 통일문화 공감행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자연스레 2019년 11월, 서울시민청에 설치·운영했던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이 떠올랐다. 당시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편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홍보관을 개관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관람객이 홍보관을 찾아 전시를 감상했고 남북의 언어 차이를 주제로 설치한 낱말 돌림판, 겨레말 농구시합, 십자말풀이 게임 등을 체험했다.



↑ 2019년 11월 26일 서울시민청에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개관했다. 홍보관은 해살이관과 말모이관으로 나눠 운영했다.

홍보관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의 의미와 가치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공감했다. 무엇보다 공동회의가 멈춘 시간을 무척 안타까워했고 남북이 다시 만나 사전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한편으로 겨우내 홍보관을 운영하는 동안, 18년간 추진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아직 모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온라인(3D) 홍보관〉 개관,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시리즈〉 도서 발간, 〈남녘말 북녘말〉 애플리케이션 개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편찬, 겨레말문화학교 운영 등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편찬 성과를 환원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안팎의 사정으로 2020년 2월 서울시민청 홍보관 문을 닫은 후 대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찾게 된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현장은 더 벅찬 기대를 갖게 했다.

통일, 문화로 통하다

통일부는 2014년 '통일문화주간'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통일, 북한 관련 각종 전시, 공연 등으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20년부터 행사명을 '통일박람회'에서 '통일문화 공감행사 〈통하나봄〉'으로 바꾸면서 통일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통일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사전 편찬과정을 소개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왔다.

통일부는 〈광화문에서 통하나봄〉의 주제를 '광장에서 자유, 인권, 그리고 통일을 노래하다'로 내걸고 '자유'를 불러봄(공연), '인권'을 바라봄(전시), '통일'을 놀아봄(체험)으로 나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다. 사업회는 체험 프로그램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겨레말'을 주제로 '통일을 놀아



↑ 사업회가 2021년 3월에 제작한 북측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과 북측 사전 《조선말대사전》을 전시했다.



↑ 한 관람객이 패널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 겨레말큰사전 부스를 찾은 어린이가 전시대에서 겨레말 낱말 카드를 보고 있다.

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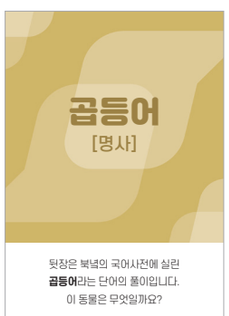
겨레말큰사전 부스는 크게 전시관인 '겨레말 톺아보기'와 홍보관인 '겨레말 즐기기'로 구성했다. 먼저 전시관에는 사업회의 주요 해살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편찬과정 등을 소개했고 《겨레말큰사전》 가제본과 《조선말대사전》, 사업회가 발간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시리즈〉 도서 등을 전시했다. 홍보관에서는 관람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스 입구에는 관람객들이 《겨레말큰사전》에 꼭 수록되기를 바라는 '겨레말'을 적어 붙이도록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날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고른 단어는 '사랑', '통일', '가족', 그리고 '평화'였다.

또한 낱말 카드를 엽서 형식으로 제작해 남북이 다르게 쓰는 어휘와 표현들을 퀴즈 형태로 맞혀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쉽게 설명하고자 축하하다, 팔짱, 무지개, 어흥, 곱등어, 날짜, 햇빛, 가위바위보, 카스텔라, 국어사전의 올림말 순서 등을 주제로 각각 카드를 제작하고 앞면에는 질문을, 뒷면에서는 질문과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디자인했다. 관람객들에게 가





↑ '카스텔라' 낱말 카드. 뒷장에서 북녘의 간식 이름을 그림과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곱등어' 낱말 카드. 북녘의 《조선말대사전》 뜻풀이를 참고해 '곱등어'의 남녘말을 유추할 수 있다.



↑ 통일문화 공감행사의 조형물 '출발! 통일열차'를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많은 선택을 받은 카드는 '카스텔라'로, 간식과 관련된 북녘말과 그림을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인데 어린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참여했다. 관람객 대부분이 '고등어'의 북녘말이라고 대답했던 '곱등어'('돌고래'의 북녘말) 카드와 함께, 쉽게 맞히지 못한 '어흥'의 북녘말 '따웅' 카드까지 동물과 관련된 낱말 카드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축하하다', '국어사전의 올림말 순서'와 같은 카드를 통해 남북의 언어문화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남북 언어 관련 질문들을 해소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미를 되새겼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알고 있던 북녘말이 진짜 북녘의 국어사전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비 온 뒤 맑음

지난 5월 26일과 27일의 날씨는 극적(劇的)이었다. 하루는 맑고 볕이 뜨거웠고 하루는 흐리고 빗줄기가 매섭게 떨어졌다. 그간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날씨도 그러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2005년 12월에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고 2015년까지 총 25차례 공동회의를 열었다. 남북은 공동회의를 통해 《겨레말큰사전》에 담을 30만 7천 개 올림말을 선정했고 그중 12만 5천 개 원고를 합의했다. 앞으로 합의해야 할 18만여 개 원고를 남겨둔 채, 2015년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되면서 아직 사전을 완성하지 못했다. 사업회가 2021년 3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한 데에는 공동회의 재개 시 빠르게 북측과 협의해 사전을 완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5월 27일 빗줄기가 굵어지던 오후 6시, 이틀간의 통일문화 공감행사가 끝났다. 해와 구름이, 겨레말큰사전과 국민이 통했던 행사 끝에 시민들과 또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겨레말큰사전 부스를 정리하다가 생각했다. 극적인 날씨처럼 극적으로 공동회의가 열리고 《겨레말큰사전》을 발간할 수 있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찬 봄비 뒤에 다시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도 오지 않을까. 부스를 닫고 나오며 나는 양일간 겨레말큰사전 부스 뒤편에서 우리를 지켜봤을 세종대왕을 지나 사업회로 향했다. 끝



윤석정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오페라 미용실』, 『누가 우리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 등이 있다. 2019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기획홍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개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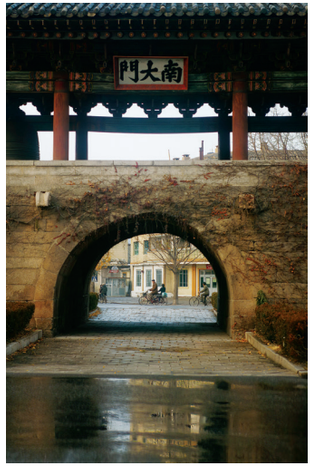
‘어머니산’의 뒷모습을 볼 날을 꿈꾸며

글 · 사진 **유수** 사진작가

고려의 수도 개성. 개성 중심에는 송악산이 있고, 송악산은 고려 궁성 만월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1,100여 년 전 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고려의 수도를 이곳 개성으로 정하며 고려 궁성이 지어졌으니, 만월대는 그렇게 474년 역사의 중심에서 고려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함께해 온 셈이다. 때문에 만월대 지하에는 고려 역사의 금속 활자와 막쇄 그리고 자기류 등 고려 역사의 수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 남과 북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만월대 발굴 작업을 했는데, 필자는 운이 좋게 3차례 발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오이냉국 맛

발굴 현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남과 북의 발굴대는 더운 여름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삽질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겨울에는 시린 손을 녹여 가며 언 땅에 삽질을 했다. 이렇게 발굴한 유물은 세척과 건조 그리고 분류 과정을 거쳐 내 카메라 앞에



↑ 개성 남대문



↑ 개성 민속마을 봉사원

왔다. 그럼 나는 바람이 안 드는 천막 안에서 기름 발전기를 돌려 만든 전기를 간신히 조명에 공급해 유물 사진을 찍었다. 발굴대와 비교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나 또한 땀과 열을 식혀 가며, 장비에 무리가 갈까 전전긍긍하며 어렵사리 촬영을 이어가곤 했다. 그 와중에 북측 발굴대가 건넨 오이냉국 맛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현장 기록 촬영은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 물론 발굴 지역 외에는 촬영이 쉽지 않았으나 날이 맑은 경우에는 산책하는 기분으로 만월대를 거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발굴 현장에 나가 보면 '어머니산'이라 불리는 송악산이 항상 만월대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를 가져 배가 봉긋 솟은 여인이 머리를 풀고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만월대와 송악산은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멋과 운치가 있었다. 나는 만월대와 송악산을 발굴대와 함께 기록했다.

개성 문화유산 참관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이따금 만월대 외의 개성 문화유산을 참관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개성 시내 한 중심에 개성 남대문이 있고, 그 주변으로 국숫집, 남새(야채)상점, 사진관, 목욕탕 등 상가와 식당,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남대문에서 서쪽으로 도보 5~6분 거리에는 '개성민속려관'으로 불리는 조선시대 한옥마을이 있다. 휴전협정이 개성시 고려동에 있는 내봉장에서 시작해 개성과 가까운 판문점으로 옮겨간 덕분에 이곳은 전쟁의 피해가 덜했다고 한다.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지금도 남아 있는 한옥 중 일부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속여관은 우리 발굴대의 점심 식사를 책임져 준 곳이기도 하다. 고춧가루가 적은 개성식 김치와 인삼을 꿀에 절인 인삼 절임도 기억에 남는다. 남대문에서 서북쪽으로 10여 분 걸어가면 정몽주의 피가 깃든 선죽교와 정몽주를 기리는 숭양서원이 있다. 고려 성균관도 멀지 않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어 개성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남대문에서 북쪽으로 난 대로를 따라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우리가 발굴 작업을 한 만월대가 나타난다.



↑ 만월대와 송악산



↑ 개성 숭양서원

개성, 분단과 화합의 경계

남쪽 발굴대가 현장에서 발굴을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곳은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 현대아산이 운영한 숙소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2016년 2월까지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됐다. 송악플라자에서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송출된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었고 KT에서 별도로 설치한 회선을 통해 서울과 통화도 가능했다. 개성공단 거리를 지날 때면 족구나 배구를 하는 북측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으며 송악플라자 2층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송악소주와 대동강 맥주를 즐기기도 했다.

만월대를 비롯해 수많은 고려 유적을 간직한 개성, 조선의 한옥마을,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역사의 고대와 근현대가 압축된 곳, 분단과 화합의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개성 아닐까? 우리는 송악산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볼 뿐…. 마치 달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 개성공단

언젠가 분단의 벽을 넘어 송악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날을 기대해 본다.



유수

사진작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후 우리 역사와 민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진을 찍고 있다. 개인전으로는 2022년에 「고려 The Corea : 남과 북, 고려 문화재」 사진전과 「#LINK, 우리가 만난 조선의 아이들」을 열었다. 이 외에도 '서울역 284(2018)'와 일본 '교토아트센터(2019)'에서 열린 다양한 미술계 작가들의 공동기획전 「개성공단」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프로폴리스와 벌풀

글 **오현아** 강원대학교 교수

"프로폴리스(propolis)가 뭔니까?"

2019년 8월 프라하에서 생애 처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이북 선생님들을 뵈었을 때 얼마나 설레고 신나던지요. 학술대회장과 숙소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발표를 듣고, 저녁 자리에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좋았습니다. 며칠을 그리 뵈었더니 그 짧은 시간에도 선생님들에 대한 정이 저 혼자 깊어져 떠나시는 날 인사를 갔었더랬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오라비 같아서 하는 말인데…." 하시며 이야길 잘 건네시던 선생님이 기침하시던 모습이 어찌나 눈에 밟히던지요. '중국까지 긴 비행에, 다시 이북까지 그 먼 길에 기침으로 고생하실 텐데…. 근처에 약국이 있나? 며칠을 오가던 이 길에선 못 본 것 같은데 어쩌지?' 고민하던 제 눈에 길거리 마켓에서 파는 프로폴리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와! 프로폴리스면 되겠다~!' 얼른 사 들고 다시 돌아온 제게 선생님은 "오 선생, 왜 다시 왔어요?"라고 물으셨지요. "선생님 기침하시는 게 영 맘에 걸려서 프로폴리스를 사 왔습니다. 이거 드시면 기침이 가라앉으실 거예요. 저도 목이 안 좋으면 이걸 먹곤 합니다."라는 제 대답에 선생님은 "아이고, 프로폴리스가 뭔니까?" 하셨습니다.

프로폴리스와 벌풀, 그 사이

아, 외래어인 이 '프로폴리스'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천연 항생제인데, 내성도 없고 염증 치료에 좋아서 평소에 한두 방울씩 드셔도 좋대요." 알겠다시며 잘 챙겨 먹겠다고 환히 웃으시던 선생님, 무슨 일이냐며 같이 웃자시던 선생님들 모두 그립습니다.

그럼 '프로폴리스'는 이북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북에서는 '벌풀'[1]이라고 한답니다. "벌풀은 천연항생제로서 강한 항균, 항염증, 진통, 세포의 재생촉진작용, 유기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간염, 돌림감기, 대장염, 위염, 인후염, 전위선염 등에 효과적이며 병원성 미생물들에 대한 억제작용으로 하여 화상, 상처, 여드름, 피부염, 습진, 무좀치료에 쓰인다"[2]라고 합니다.

이러한 '벌풀'의 효용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 검색 결과[3]에서도 나타납니다. 각종 의료 분야의 다양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63건의 기사가



↑ 금강산의 천연 원료로 만들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꿀 제품들. [사진: 조선신보] [4]

그것입니다. 발행 잡지에 따라 관련 질병이나 '벌풀' 관련 의약품 등을 제시해 보면 다음[5]과 같습니다.

잡지명	의약품
《발명공보》	벌풀주사약, 질염, 벌풀 포함 치료용붙임띠
《조선약학》	대장방출미세둥근알약제조, 벌풀명반이뿌리관소독연고, 벌풀레보눈약, 벌풀무좀약, 키토산-벌풀화상크림, 황경피벌풀싸락약
《내과》	만성설사증, 위십이지장궤양, 습진, 만성위축성위염, 만성감염성세뇨관간질성콩팥염, 만성기관지염, 류마토이드관절염, 만성담낭염

1) '이 벌풀(프로폴리스)은 꿀벌들이 자체방어를 위하여 식물체에서 내보내는 식물성 수지물질들을 수집하여 가공한 물질이다.' (「금강산의 천연원료로 만든 건강식품.. 벌풀꿀 · 인삼꿀 등」, 통일뉴스 2020년 6월 8일 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371, 2023년 5월 30일 검색)
2) 위의 각주 1과 동일.
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벌풀' 검색 결과(2023년 5월 30일 검색), 66건 중 3건(「식료품보존에서 벌풀의 응용」(식료품 분야), 「치약생산에서 벌풀의 리용」(일상품 분야), 「벌풀을 누에고치생산에 리용」(기술 분야)은 분야가 달라 제외.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list?materialScope=TOT&configCodes=TOT&pageSize=30&sortField=publishYear&sortDirection=DESCENDING&method=KEYWORD&fields=ALL&keywords=%EB%B2%8C%ED%92%80&format=list)
4) 위의 각주 1과 동일.
5)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 관련해 〈남북 질병 용어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암센터에서는 「남북한 암용어사전」(2022)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아, 산부인과》	만성자궁경관염, 지속성설사증 및 영양장애, 어린이천식성기관지염, 어린이폐염, 만성자궁내막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급성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화농성귀바퀴연골막염, 재발성아프타성입안염, 벌풀막제의 점막재생촉진작용, 이뿌리관소독약, 발치창혈괴촉진 및 보존피복용액, 치수염, 급성치수염, 파라포름-벌풀파스타
《기초의학》	벌풀-피브로인연고, β-CD벌풀주사약, 비만세포탈과립, 아나필락시쇼크
《예방의학》	벌풀음료의 항산화작용, 감염성창상, 항암활성
《조선의학=주체의학》	벌풀-피브로인연고, 비특이성질염, 어린이화상성창상, 급성토리체콩팥염, 만성담낭염
《외과》	기관지루를 합병한 만성농흉, 창상치유, 급성유선염, 머리, 얼굴창상

일상에서도 의료 분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벌풀', 사전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남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프로폴리스'와 '벌풀'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샘》[6]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벌풀** 「001」「명사」「북한어」 꿀벌이 나무순과 꽃술에서 뒷다리에 묻혀 가져오는 진. 꿀벌들은 이것으로 벌통의 짬이나 구멍을 메우며 평탄하지 않은 곳을 고르기도 하고 벌개 가름대를 벌통에 고착시키거나 벌집의 문을 좁힌다.
>
> **프로폴리스** 「001」「명사」『보건 일반』 벌이 나무나 수액에서 수집한 물질과 벌의 타액선에서 나온 효소가 섞여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 물질. 벌통 내부에 발라서 벌통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상처 및 염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방부 효과가 있다.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북한용어 사전》[7], 《남북한 언어비교》[8]에서도 '벌풀'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일상어 차원에서도, 전문어 차원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벌풀'과 같은 단어들이 남북 언어 비교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벌풀은 효과 있으셨어요?"

'2019. 8. 18. ~ 23. 영혼에 새겨진 기억', 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무슨 기억이길래 그러냐, 로맨틱한 내용이냐 물으시더군요. 글쎄요, 로맨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라고, 그 시간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북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그 의미가 알고 지낸 시간과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날 줄 알고….' 하신 말씀처럼 시간이 어느새 이리 지났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고 싶은데 못 뵙는 인연은 처음이라 더 많이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다시 뵙게 되면 그때는 이리 여쭈어야겠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감기는 잘 나으셨었나요? 벌풀은 효과 있으셨어요?"

6) 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D%94%84%EB%A1%9C%ED%8F%B4%EB%A6%AC%EC%8A%A4(2023년 5월 30일 검색)
7)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termDicaryList.do(2023년 5월 30일 검색)
8)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2023년 5월 30일 검색)



오현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업회 자문위원,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모어교육사 차원에서 재외동포, 이북의 모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이북 규범문법과 학교문법의 상관관계 분석(1)-〈문화어문법규범초고〉(1972),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2011), 〈조선문화어문법〉(1979), 〈조선문화어1, 2〉(2003)의 문장론을 중심으로」,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백로지

글 최성규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백로지'는 종이의 한 종류이다. '백로'라는 이름이 자못 운치 있게 들려서 전통 있는 고급 종이가 아닐까 짐작하기 쉽지만, 옛 문물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남녘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백로지'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사전	뜻풀이 및 예문
《표준국어대사전》	**백로-지**[2](白露紙)[뱅노지] 「명사」 「1」 '갱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오재철은 미리 준비하였던 백로지를 갖다가 칠판 위에 펼쳐서 압정으로 네 귀를 붙여 놓는다.(이기영, 《봄》) 「2」 종이의 하나. 평안북도 영변에서 난다.
《조선말대사전》	**백로지**[뱅—](白露紙)[명] 품질이 좋은 흰종이의 한가지. ‖ ~로 공책을 매다. 얇은 ~. ~와 연필. | 청년들이 출판물보따리, 백로지통구리따위를 메고 모두 안개속으로 잔교를 밟아나아가 배에 올랐다.(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은하수》)

남녘 뜻풀이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갱지(更紙)'를 가리킨다. '갱지'의 뜻풀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찾으면 '지면이 좀 거칠고 품질이 낮은 종이. 주로 신문지나 시험지로 쓴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백로지'는 품질이 '낮은' 종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므로 품위가 퍽 낮은 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평안북도 영변에서 나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자체의 특성은 보이지 않고 생산지만 적혀 있어서 눈에 띈다. 그것도 북녘 지역이라니. 북녘의 특산품을 남녘 사전에서 잊지 않고 챙겨 넣은 것인가 싶어 뜻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스친다.

그러고 나서 북녘 뜻풀이를 보니 조금 당황하게 된다. 북녘 사전에서는 백로지를 품질이 '좋은' 종이라고 풀이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두고 남북의 가치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게다가 '갱지'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다.[1] 그러면 백로지는 도대체 어떤 종이일까? 그리고 그 품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궁금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평안북도 영변(북녘 표기로는 '녕변')에서 난다는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남녘의 사전에서는 원산지가 북녘이라는데, 정작 북녘의 사전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다. 북녘 사전이 그저 빠뜨렸다고만 하기에는 무언가 개운하지 않다.

일단 사업회의 말뭉치 자료에서 '백로지'가 쓰인 용례들을 훑어보면, 이 종이가 어떤 종이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몇몇을 찾아 보이면 아래와 같다.

남녘 용례

㉠ 그의 일기장은 {백로지를} 접어 맨 공책이었다.《최수철: 뿌리에 고인 눈물》
㉡ 쌍현이는 시험 때면, 산더미 같은 {백로지를} 등사실에 쌓아 놓고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도, 등사판 앞에 앉아 … 시험지를 찍었다.《최명희: 혼불》
㉢ 우린 기본 스케치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이잖아. 모조지나 {백로지는} 바라지도 않고 싸구려 시험지만 쓴다 해도 그 종잇값이 얼마니 그래.《조정래: 한강》
㉣ {백로지} 깐 술상 젓가락 장단에 자진모리《고은: 만인보 13》

북녘 용례

㉠ 그는 자기 돈으로 {백로지를} 사서 공책을 매주면서까지 글을 배워주었고 타자기술을 익혀주었다.《날개》(북)
㉡ 다음달에는 교실들의 간막이를 하고 칠판이랑, {백로지랑}, 반지랑, 등사용지며 잉크랑 교재비품들과 사무용구들을 구입할수 있었다.《봄비》(북)
㉢ 그리다가는 지우고 그우에 다시 그린 자리가 뚜렷한 {백로지}우에는 억센 손아귀에 틀어쥔 낫 한가락이 그려져있었다.《낫》(북)
㉣ 류영립은 그에 만족한듯 … 손바닥을 가볍게 다독이며 {백로지를} 씌워놓은 음식다담상우에 눈길을 주었다.《관북의병장》(북)

용례들을 바탕으로 백로지의 쓰임새를 정리해 보면, 공책 용지로 쓰거나(㉠, ㉠), 인쇄-등사 용지로 쓰거나(㉡, ㉡), 그림 그리는 종이로 쓰거나(㉢, ㉢), 음식상 위에 깔아 놓는(㉣, ㉣) 것이 남북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남녘 용례에서 벽지로 바르는 데에 쓰거나, 북녘 용례에서 돈을 감싸는 데에 쓴다는 내용이 더 보이기는 하나, 남녘의 백로지와 북녘의 백로지를 아예 다른 물품으로 판단할 만큼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품질이 낮다는 설명과 높다는 설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위의 ㉢을 보면, '싸구려 시험지'에 견주어 '모조지'와 '백로지'는 그래도 조금 더 비싼 종이로 보인다. 그러나 남녘의 다른 용례를 보면 "까짓 권리증은 서푼 가치도 없

1) '갱지'의 《조선말대사전》 풀이는 '주로 신문지나 사무용지로 쓰는 지면이 좀 거칠고 품질이 보통인 종이'라고 되어 있다. '갱지' 쪽에도 '백로지'와 어떤 관계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는 {백로지} 조각이다."《유현종: 섬진강》처럼 얕잡아 말하는 일도 있다. 결국 용례 몇몇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사실, 품질이 높은지 낮은지는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비교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의 높낮이 문제를 사전의 뜻풀이에 아예 넣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속되게' 이른다는 뜻풀이도 다시 짚을 여지가 있다. 남녘에서도 다른 사전의 뜻풀이에는 '속되게'라는 말이 빠져 있기도 하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풀이는 아래와 같다.

사전	뜻풀이 및 예문
《우리말큰사전》	**백로-지**[2]=갱지. 〔白鷺紙〕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백로지**[1] [白露紙] [뱅노-] [명사] 품질이 낮은 서양식 종이의 하나. 표면이 조금 거칠며 신문 용지 따위로 쓴다. ‖ 황량한 거리의 담벼락에는 각종 구호가 적힌 백로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유의어] 갱지[1](更紙)

'백로지'의 한자가 '白鷺紙'와 '白露紙'로 조금 다르기는 하나 뜻풀이로 보아서는 같은 물건을 가리킨다. 《우리말큰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갱지'와 '백로지'를 같은 말(또는 비슷한 말)로 처리하였고, '속되게'라는 설명은 넣지 않았다. '백로지'가 어떠한 느낌을 지닌 채 쓰이는지 여러 용례를 두루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글쓴이가 사업회의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용례들을 보기로는, '속되게' 볼 만큼 품위가 낮은 문맥에 놓인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난다는 백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집 이력'을 살펴보면 뜻갈래 「2」가 나중에(2019년 6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어떤 관련 정보가 있었기에 그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녘에서 잘 알려진 백과사전인 《두산백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백로지'라는 항목이 없다. 또한 북녘의 《조선대백과사전》에도 '백로지'라는 항목은 없으며, 다만 〈세선리원호물자보관장소〉라는 항목의 설명 가운데 "이들은 광목, 신발, 내의류, 소금, 성냥, {백로지}, 의약품과 의료기구 등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이 보관장소에 두었다."라는 문장이 보일 뿐이다. 세선리(世仙里)는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지명이며, 평안북도 영변과 관련될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몇몇 곳에서는 전통 한지의 생산지별 분류로 평북 영변의 백로지를 언급한 경우가 보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에는 '白鷺紙' 또는 '白露紙'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한국학자료포털(https//kostma.aks.ac.kr)에서는 몇 군데 보이지만, 영변의 특산이라고 쓴 기록은 찾지 못했다. 오히려 조선 정조 때 김정중이 쓴 《연행록(燕行錄)》 중 〈기유록(奇遊錄)〉에는 "燕京土産白露紙"라는 기록도 보인다. 백로지가 중국 연경(오늘날의 베이징)의 토산품이라는 뜻이다. 석사논문인 장연이(2012) 〈조선시대 초상화 제작에 사용된 종이 연구〉의 66~71쪽을 따르면 백로지의 원산지로 평북 영변, 강원 영월 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종이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국어사전은 백과사전에 있는 낱말이라도 다 싣지는 않으며, 싣더라도 그 뜻풀이가 백과사전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 물론 백과사전에 없는 내용을 더 자세히 밝히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대개 언어 현상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일 때 그러하다. 백로지의 원산지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데다가 언어 현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넣기는 적잖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다듬어 본 '백로지'의 풀이는 아래와 같다. 뜻풀이를 '깁고 더하기'보다는 '거르고 빼기'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백로지(白露紙)[명] 종이의 하나. 주로 신문 등을 인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에 쓴다. | 쌍현이는 시험 때면, 산더미 같은 {백로지를} 등사실에 쌓아놓고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도, 등사판 앞에 앉아 성냥개비처럼 마른 팔을 쉭, 쉭, 놀리며 시험지를 찍었다.《최명희: 혼불》 / 이 회비덕분으로 전기도 수도도 회복되였고 … 칠판이랑, {백로지랑}, 반지랑, 등사용지며 잉크랑 교재비품들과 사무용구들을 구입할수 있었다.《봄비》(북) [참고] 갱지.



최성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2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옥천 지방의 무뚝뚝한 말속에 깃든 순한 마음들

글 **송진권** 시인

너 줄라고 가쟁이째 꺾어온 겨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든다. 쇠죽 끓이고 군불 넣은 방은 새벽이면 차갑게 식어 냉골이 된다. 콩나물시루의 물도 얼어붙는 방이다. 서로 이불을 뺏으려고 잡아당기다 하나가 이불을 둘둘 말고 자면 나머지는 몸을 둥글게 말고 떨며 잠을 설친다. 조용하던 정지[1]에서 와르릉 가마솥 뚜껑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뚝뚝 나뭇가지 꺾어 넣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쇠죽을 끓이려고 아궁이에 불을 넣는 것이다. 차갑던 바닥이 뭉근하게 따스해지고 매캐한 냇내[2]가 올라온다. 방안에 훈기가 돈다. 아버지는 등겨며 콩깍지를 넣은 쇠죽을 끓여 외양간으로 가져간다.

"야덜아, 싸기 일나서 낯 훑으려 씻구 밥먹으라니께. 해가 똥구녕까지 떴는디 저렇게 게을배기[3]니 워디 다쓴댜." 하는 엄마의 지청구가 들리고 "내비둬 줌, 야덜두 방학인디 이런 때 자야지. 때되믄 알아서 일난다니께 그랴." 하며 아버지는 지게 지고 집을 나서며 그렇게 우리 역성을 든다.

엄마도 우릴 깨우는 걸 포기하고 "정제 밥 차려놨으니께 먹을라믄 먹구 말라믄 말어." 하며 마실을 나가는 것이다. 따스한 훈기에 우리 형제들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썰매를 타러 나간다. 동네 가운데 있는 논에서 한참을 썰매를 타고 있으면 작은 산 하나가 움직이듯 나무를 지게에 진 아버지들이 집집마다 마을로 들어선다. 털썩 마당 가운데 나뭇짐 부리는 소리가 들리고 우린 아버지랑 같이 고구마나 감자 삶은 것으로 점심을 먹는다. 지고추[4]가 둥둥 뜬 동치미 국물을 훌훌 마시고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낮잠을 한숨 잔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다시 지게를 지고 다른 아저씨들과 산으로 간다. 해거름에 산에서 내려오는 아버지 지게엔 꾸덕꾸덕 마른 고욤이 가쟁이째[5] 묶여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다.

"아나, 겸[6] 꺾어왔다. 느덜 먹으라구 가쟁이째 꺾어왔다니께." 하며 고욤이 많이 달린 가지를 꽃다발처럼 내밀면 우린 너구리 새끼들처럼 몰려가서 툭툭 씨를 뱉어가며 고욤을 먹었다.

"너무 많이 먹으믄 똥구녕 메인다니께, 뒀다 낼 먹으라니께 그랴." 가쟁이째라는 말은 그런 말이다. "너 줄라고 가쟁이째 꺾어온 거여."라는 투박하고 뚝뚝 끊어지는 말은 충청도 하고도 옥천에서도 더 들어간 못골에 살던 우리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말이다. 표준말로는 가지째가 맞는 말일 거 같지만, 가쟁이째라고 해야 나는 머릿속에 열매가 가득 달린 채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떠오르는 것이다.

혼곤한 꿈속으로
보리똥 달린 나뭇가지를 들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지요

너 줄라고 식전에 가서 가쟁이째 꺾어온 거여
두었다가 혼자만 먹어
니가 며칠 앓느라구 밥두 못 먹구 있대서
새벽 댓바람에 꺾어온 거라니께
가쟁이째 꺾어왔다는 거요
제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송두리째 모두 내줄 것 같은 그 말의 가지마다
하나 둘 새콤한 보리똥이 다닥다닥 맺혀
흔들리는 거 같지요

열매가 제일 많이 달린 가지나
기중 실하고 빛깔 고운 데를 뚝 분질러서
제 속의 가장 고갱이 같은 마음을
가쟁이째 꺾어다 건네준 그이처럼
나는 내 마음 가쟁이째 뚝 분질러 누구에게
건네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첫새벽에 일어나
꺾어다 줄 수나 있을까요

—「가쟁이째」 전문[7]

홍역인가 더위를 먹었던가 해서 며칠을 학교도 못 가고 쇠풀 뜯기러도 못 가고 집에서 앓고 있을 때였다. 말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종환이 형은 나보다 두 살 손위던 이웃에 살던 형이었는데 같이 쇠풀 뜯기러도 다니고 올뱅이[8]잡으러도 다니고 멱 감으러도 다녔다. 사람이 순해서 두 살 더 많대도 동무처럼 구순하니 나랑 잘 놀아주었고 같이 쇠꼴을 베다가도 내 것이 적으면 자기 것을 내 것에 덜어주기도 했다. 그때는 집집마다 소 한두 마리씩 먹였다. 소는 송아지를 낳으면 내어 팔거나 논밭 가는 데도 상일꾼으로 썼기 때문에 집안의 큰 재산이었다. 쇠꼴을 베거나 쇠풀 먹이는 일들은 어린아이들 몫이었다. 나는 종환이 형과 늘 함께 산으로 들로 소를 먹이러 다니곤 했다. 내가 아파서 한 달여를 학교도 못 가고 앓고 있을 때다. 밖엘 못 나가서 나는 좀이 쑤셨고 종환이 형도 혼자 다니려니 많이 심심했었나 보다. 겨우 몸이 좀 괜찮아져서 종환이 형을 따라 같이 쇠풀 뜯기러 갔다. 산으로 소들을 고삐를 목에 감거나 뿔에 감아서 올려놓고 우리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멱을 감거나 했는데 종환이 형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부르기도 했을 텐데 한참 만에 그가 산에서 내려왔다. 머리에 거미줄이며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얼굴에 한 손에 빠알갛게 맺힌 보리똥을 가지째 꺾어 들고 내려와 내게 빨갛게 익은 열매를 내밀었다. 보리똥은 한참을 능선을 타고 가서 골짜기로 내려가야 있던, 그나마도 웬만하면 눈에 띄질 않아서 허탕일 때가 많던

1) '부엌'의 충청도 말.
2) 연기 냄새.
3) '게으름뱅이'의 충청도 말.
4) '삭힌 고추'의 충청도 말.
5) '가지째'의 충청도 말.
6) '고욤'의 옥천 말.
7) 송진권, 시집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2019) 수록 작품.
8) '다슬기'의 충청도 말.

귀한 것이었다. 그 빨갛고 새콤하던 보리똥 열매의 맛을 지금도 기억한다. 지금이야 지천이라 울타리나 조경수로 심는 보리똥나무는 개량종이라 열매가 많이 달리고 큼직큼직하지만 쉽게 물크러지고 터진다. 종환이 형이 꺾어온 야생에서 자라던 작지만 알차던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위의 시에도 썼지만 가쟁이째 꺾어왔다는 말은 내게 빨갛게 매달린 보리똥이나 망개 열매와 순박하던 아버지와 이웃에 살던 형과 어릴 적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온다. 새콤하고 떫은맛이 나던, 눈밭에 파묻혀 빨갛던 망개 열매를 생각나게도 하고 아버지 지게에 꽂혀 흔들리던 고욤도 생각나게 한다.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뚝 꺾어서 내밀 만한 사람이 드물어진 지 오래다.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잇속 챙길 생각부터 머릿속으로 셈하고 있지 않은가. 그 그리운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 두고 우린 이렇게 되었을까 잘 모르겠다. "너 줄라고 가쟁이째 꺾어온 겨." 하는 그 말이 무척이나 듣고 싶다.

들꽤 찌구 칠거지루 묶구 와서 죽은 디끼 둔넜었네

들기름 한 병 받아 차에 싣고 나오는 길
고소한 내 진동하는 차 안엔
우중에 노박이로 비 맞으며
엎드려 들깨를 낸 느 어머이의 소금땀과
더위에 말라 죽지 않게 물 퍼나르던 느 아부지의
거친 숨소리와
들깨 순 꺾는 관절염으로 돌아간 손가락과
들깨꽃 쏟아진 밭고랑에 엎드려 풀 잡던 호미질과
들꽤 찌구 칠거지루 묶구 와서
죽은 디끼 둔넜었네 하는 혼잣소리와
들깻잎에 앉았던 방아깨비의 따다다닥 날아가는
소리들과

—「백미러」 부분[9]

들깨는 참 강인한 식물이다. 봄 가뭄이 길어 씨갑시 부칠 때[10]를 놓치면 어디고 할 것 없이 들깨를 심는다. 아무렇게나 부어놓은 들깨가 싹이 터 소복하게 자라면 뽑아다가 푸석푸석 흙먼지가 이는 밭에 심는다. 들깨는 햇볕이 쨍쨍 퍼부어 배배 말라 돌아가다가도[11] 비만 오면 이내 되살아난다. 물론 너무 가물면 물이라도 퍼다가 줘야 하지만 어디에서고 잘 살고 잘 자란다. 비가 오는 중이면 비닐을 몸에 둘둘 감고 나가거나 우비를 입고 나가 노박이로[12] 비를 맞으면서 들깨를 심는다. 척박한 땅에서도 들깨는 잘 자라고 씨앗을 맺는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파리는 따서 장아찌를 담거나 나물을 무쳐 먹고 씨앗은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어 먹는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많이 먹었다. 참깨는 들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니 참깨는 모두 내다 돈사고[13] 집집마다 들기름을 요긴하게 썼다.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따 먹고 열매는 열매대로 먹고 나면 들깻대는 뿌리째 뽑아다 불쏘시개로 쓴다. 기름기가 많은 들깻대는 불이 잘 붙어서 불쏘시개로 그만이다. 팔밭다랑이 일구고 돌아오던 어머님의 몸에서 나던 들깻내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반찬거리 마땅찮을 때 마당 여기저기 돋은 돌들깨 이파리를 따다 쪄서 양념해 낸다. 물 말아서 밥 먹을 때 한 잎씩 척척 걸쳐 먹던 그 맛과 냄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이파리끼리 붙어서 떼어먹기 어려우니 손으로 하나씩 떼어 숟가락에 얹어 주던 풀물 든 손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들깨는 웃자라면 안 되니 기다란 회초리로 휘휘 둘러 순을 치거나 낫으로 아무렇게나 툭툭 꺾어도 야물게 열매가 맺힌다. 가을이면 허리에 보자기 묶어 누렇게 떡잎 지는 깻잎을 따다 명주실 묶어 누름돌로 지질러 박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일에 지친 어머니가 불러도 못 듣고 위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들꽤 찌구 칠거지 떠다 묶구 와서 죽은 디끼 둔넜었네", 하는 말은 순화하면 "들깨 베어 칡넝쿨 걷어다 묶고 와서 물 말아서 밥 먹고 죽은 듯이 드러누워 있었네", 하는 말이다. 좀 더 쉽게 풀면 가을볕은 뜨겁게 쏟아지는데 주면 먹기나 할 줄이나 아는 것들이 한 번 내려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해도 코도 들씬도 않으니 앓느니 죽는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전동휠체어에 올라타고 무릎걸음으로 간신히 기어가서 꼬투리 버는 들깨 베어놓고 털기 좋게 밭 가에 칡넝쿨 걷어다가 묶어놓으니 힘들어서 대충 밥 한술 뜨고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한숨 잤다는 말이다. 일은 여기저기 밟히는데 혼자 하려니 줄지도 않고 아들딸들은 뭐하러 이런 걸 자꾸 심느냐고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말리지만 그래도 살았을 적 몸 움직일 때 노나 주는 재미로 심는다는 말이다. 기름기 다 빠져나간 몸에 더 뭐 내줄 게 있다고 더 못 해줘서 안달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애끓는 사랑이 소주병에 누런 들기름으로 담겨 찰랑이는 것이다.

9) 앞의 책 수록 작품.
10) '씨앗을 심을 때'라는 뜻의 충청도 말.
11) '어린 모종이 말라서 몸이 배배 꼬일 정도'라는 충청도 말.
12) '줄곧 계속하여서'를 뜻하는 말.
13) '팔다'의 충청도 말.



송진권
시인. 2004년 창비신인시인상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자라는 돌』,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원근법 배우는 시간』, 동시집으로 『새 그리는 방법』, 『어떤 것』 등이 있다.

김강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

‘좋은 사전’을 만드는 마음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사업회는 공동회의 재개 시 사전 편찬 작업을 속행하기 위해 남북 협의용 자료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0권 1질)을 제작했다. 가제본 제작 진행을 담당하고 이어 올해 6월 출간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의 편찬 책임을 맡은 김강출 편찬실장. 그는 2005년부터 총 스물다섯 차례 개최된 공동회의 가운데 스물한 번 회의에 참여해 북측 편찬위원, 편찬 실무진들과 사전에 수록할 올림말의 선정과 집필 원고를 합의해 왔다. 사업회에서 올림말부 부장, 편찬1부 부장, 편찬부실장을 거쳐 올해 1월 편찬실장으로 임명돼 편찬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를 만나 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제3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2022. 11. 3. ~ 4.)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에 올림말부 부장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17년째 편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업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과 개정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공동회의 참여뿐만 아니라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선정, 계열어휘 정비, 관용구 원고 집필, 형태분석 정보 정비, 집필원고 교열 등의 편찬 실무를 맡아왔고 사업회의 그간의 성과를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용어 1』(2017),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생활용어 2』(2019)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1월에 편찬실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회를 밝히신다면요?

사전 편찬은 화려한 일도 아니고, 사전 편찬가도 시쳇말로 남이 알아주는 근사한 직업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30만 개 이상의 올림말을 수록하는 사전을 집체 작업으로 편찬하는 일은 매우 지난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편찬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편찬실 동료들이 미덥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 동료들에게도 고마울 뿐입니다.

사업회 편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업회 편찬실에서는 국어학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올림말을 조사·채집, 선정하고, 선정된 올림말의 원고를 집필합니다. 집필한 원고는 교열·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측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 뒀다가 공동회의에서 북측과 직접 논의해 합의합니다. 남북 각 측에서 집필한 원고도 이때 함께 검토해 ‘합의 원고’를 만듭니다. 한창 공동회의가 열릴 때는 1년에 두 번 혹은 네 번 진행했던 공동회의의 결과물을 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가장 주된 편찬실 업무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사업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겨레말큰사전》 완간과 함께 사업을 다각화하고 차별화해 남북 사전 편찬 전문기관에서 더 나아가 남북 언어문화 통합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편찬실도 사업회의 비전에 따라 사전 편찬 업무 외에 사업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문화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측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에 이어 올해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두 사전을 편찬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은 공동회의 중단 기간에 편찬사업을 조기에 완수하고자 그간의 편찬성과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종이사전 형식으로 제작한 북측 협의용 자료입니다. 가제본 제작을 통해 종이사전을 정식으로 발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진단하고 점검하는 의미와 함께 국어대사전을 종이사전으로 제작하면서 소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은 그간의 편찬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남녘의 청소년과 국민의 남북한 언어문화 차이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발간했습니다. 실용성과 교육성을 감안해 쉬우면서도 친절한 사전을 표방했는데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은 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22차 공동회의(2014. 10. 30. ~ 11. 8., 평양)

편찬실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겨레말’은 무엇인가요?

사업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통일문화 공감행사 ‘광화문에서 통하나봄’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겨레말을 메모지에 적어서 패널에 붙이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붙어 있는 메모지 중에 ‘퇴근’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글방글’이라는 의태어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웃음도 전염이 되고 울음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방글방글’이라는 단어를 보며 웃음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겨레말》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겨레말》 여름호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사업회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애정과 관심,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사전을 만드는 것만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업회 모든 임직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공동회의를 재개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좋은 사전’을 만드는 마음으로, 《겨레말큰사전》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언어생활 부문의 대중잡지

– 《새국어생활》, 《한글새소식》, 《말과 글》, 《쉬운 우리말을 쓰자》와 《문화어학습》

글 **변영수** 겨레말큰사전 편찬부장



‘문화어’는 북한에서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한 규범화된 언어이다. 남한의 ‘표준어’에 해당한다. 남한은 언어를 생각이나 느낌 등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언어관을 강조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에서는 언어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보고 있으며, 언어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도구관’의 입장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관은 남북한 언어정책에도 반영되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언어 현실에 기반하여 언중의 언어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언중들이 바른 말 고운 말 등을 쓰도록 순화하는 작업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 오픈 스페이스, 클린 뷰티, 디지털 에이징’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는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 등 정부 조직이나 민간단체에서 각각 ‘나들목, 열린 쉼터, 친환경 화장품, 고령층 정보화’ 등으로 순화한 바 있다. 남한의 대표적 언어생활 잡지로는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019. 12. 폐간), 민간 발행의 《한글새소식》(한글학회), 《말과 글》(한국어문기자협회), 《쉬운 우리말을 쓰자》(한글문화연대) 등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국가 주도의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정책은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문화어학습》이라는 잡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문화어학습》은 크게 학술적인 글과 대중적인 글로 구성된다. 학술적인 글은 ‘문학예술과 언어형상’, ‘우리생활과 언어례절’, ‘문화어교육’, ‘우리말지식’ 등의 소주제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발행된 《문화어학습》 제276호에는, 「최준경가사문학의 언어형상적특성」, 「소개인사말과 언어례절」,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을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자면」, 「우리 말 어휘구성과 겹말현상」 등을 싣고 있다.

대중적인 글에는 ‘어원과 유래’,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속담 몇가지’, ‘유모아’, ‘문장감상’ 등의 소주제가 있다. 《문화어학습》 제276호의 ‘어원과 유래’에서는 ‘성구 〈얼토당토않다〉의 어원’을 소개하였고, 속담에서는 ‘희망과 관련한 속담, 지식과 관련한 속담’ 등 속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변영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2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 계절의 책

1945년~2000년 동독과 서독의 사회언어학적 역사

『언어와 독일의 분열』

패트릭 스티븐슨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3. 2.

독일의 동서 분열 45년, 통일 후 10년, 언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사회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와 사회, 특히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학술적, 비학술적인 맥락 모두에서 동서독 언어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대체로 동독이나 서독 한쪽 언어에 초점을 맞추거나 서독의 언어 사용 양상을 표준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독일의 분단 시점인 1945년부터 통일 후 10년이 지난 2000년까지, 독일의 언어 상황을 사회언어학적으로 통찰한다.

북한 학술지를 통한 보건의료 연구와 창의적 교류 협력

『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교류협력』

김경진 외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2023. 1.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의학저널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고찰한 책이다. 그간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은 외국에서 생성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거나, 방북 경험자나 일부 탈북 의료인들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책은 북한의 과학·의학 논문과 《노동신문》을 근거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연구 상황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적정의료, 혁신기술, 비감염성 질환, 보건의료용어, 인력개발 등 고전적인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환경 영역까지 포괄적인 협력 주제들을 망라했다.

남북 농인들의 평화와 소통을 위한 한 걸음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

임서희 | **열린책들** | 2023. 3.

사업회는 2021년부터 남과 북의 수어 자료를 수집하고, 남북 수어 차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그간 사업회와 함께 남북수어 비교 콘텐츠를 제작해 온 청년 농인 커뮤니티 ‘데프누리’의 임서희 대표이다. 저자는 북한 장애인을 돕는 〈국제푸른나무재단〉 이야기, 외국 농인의 북한 여행기, 독일 농인의 북한 농사회 공헌 활동을 다채롭게 소개함으로써 북한 농사회와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어로 책을 볼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큐알(QR) 코드를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2,600개 어휘가 수록된 의학 용어 사전

『한국어 질병 표현 어휘 사전』

김양진 | **모시는사람들** | 2023. 4.

가장 최근에 편찬된 의학 분야 전문용어 사전이다. 편찬자인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양진 교수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순위에서 상위 10위까지의 질병인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알츠하이머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일상 질환인 위장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에 관련된 표현 어휘를 집대성했다.
이 사전에는 질병, 혹은 질병과 직접 관련되는 어휘 2,100개와 일반적으로 통증을 표현하는 어휘 500여 개 항목 등을 포함한 총 2,600여 개 항목이 수록돼 있다. 용어에 해당하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류, 형용사류, 속담류 등 다양한 어휘와 표현 언어를 담아내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관련 질병의 환자 본인이나 환자 가족들이 필요한 지식을 손쉽게 습득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

2023 겨레말 소식

제1회 '겨레말문화학교' 시민 과정 운영



사업회는 지난 5월 12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겨레말문화학교' 시민 과정 강좌를 열었다. 이번 겨레말문화학교 시민 과정에는 강서대학교 '북한 사회문화 이해' 수강생 30명이 참여했다. 강연에서는 모순영 사무처장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주제로, 김강출 편찬실장이 '남북 언어문화 이해'를 주제로 남북 교류와 남북 언어 차이를 자세히 전했다. 이어 편찬사업 관련 남북 언어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회는 2022년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물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가 포함된 '겨레말문화학교' 사업을 기획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겨레말문화학교는 〈시민 과정〉과 〈찾아가는 겨레말문화학교〉, 〈학교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되며, 특히 하반기에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 '제주' 행사 개최



사업회는 지난 6월 7일 겨레말TV 프로그램 〈전국 겨레말 나들이–제주〉 행사를 제주시에 있는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겨레말TV 구독자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어를 사용하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남북 및 해외 지역의 겨레말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 겨레말 나들이〉는 지난해 부산(7월), 전주(9월), 청주(11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주를 찾았다.

이번 행사에는 민현식 이사장이 인사의 말을, 제주특별자치도 오성률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이어 본 행사 1부에서는 김수열 시인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제주어로 쓰인 문학작품들과 제주어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김정숙 시인과 정민자 배우가 제주어로 창작된 시와 꽁트를 낭독했고, 뚜럼브라더스가 제주어 시를 노래했다. 2부에서는 김학준 《제줏말 작은사전》 큐레이터가 출연해 사업회 주영훈 선임편찬원과 지역어 이야기, 제주어 보존과 사전 편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전국 겨레말 나들이〉 행사는 9월 13일로, 강원도 봉평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지역어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만나볼 예정이다. 행사 영상은 겨레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겨레말TV
겨레말 나들이

사업회–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회는 지난 6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남북 법률 분야 연구와 학술역량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사업회 민현식 이사장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이 참석해 ▲남북 법률 분야 전문용어사전 편찬에 관한 교류와 지원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양 기관의 세미나, 포럼 등 상호 참석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법률 분야의 이질화된 전문용어를 분석해 남북 법률 분야 전문용어사전 편찬에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사업회는 2022년에 한국도로공사, 올해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학술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 전문용어 자료 DB구축과 남북 전문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사업회 블로그
겨레말 현장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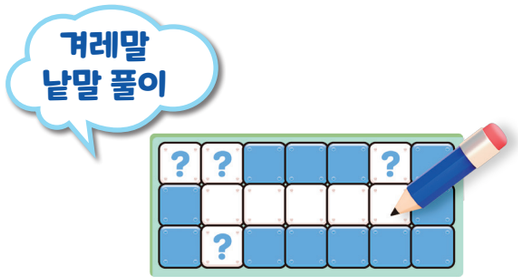


사업회는 지난 6월 28일 그간의 편찬사업 성과와 북측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토대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아래 '겨레말작은사전')을 출간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 등 100여 곳에 무상 배포했다.

북측의 일상생활 용어와 교과서 용어, 기초 전문용어, 관용구와 속담 등 총 3,053개 올림말을 수록한 겨레말작은사전은 통일의 주역이 될 남녘의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국민이 남북의 언어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특히,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자모 배열 순서에 따라 남북 어휘의 뜻풀이, 용례, 남북 대응어와 삽화 등 풍부한 정보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으며 남북 간에 차이가 있는 어문규범과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아울러 남북이 다르게 쓰고 있는 한글 자모 이름 및 순서, 생활용어, 교과서 용어, 국가명과 남북의 학제 등 남북의 언어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대조표로 작성해 부록으로 실었다.

민현식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작은 사전이 남북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큰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업회 블로그
겨레말의 책



겨레말 낱말 풀이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과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dic.gyeoremal.or.kr)'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남녘의 '표준어'와 같이 북녘에서 평양말을 기준으로 두루 쓰는 규범적인 말.
예) 대학들에서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를} 습득하도록 하였다.《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북)

② 북녘에서 '땅콩'을 달리 이르는 말. '낙화생(落花生)'의 북녘 표기.
예) 가을에 {○○○} 먹으러 오라는게 이곳 농장 사람들의 손님들에게 하는 인사이다.《내 나라》(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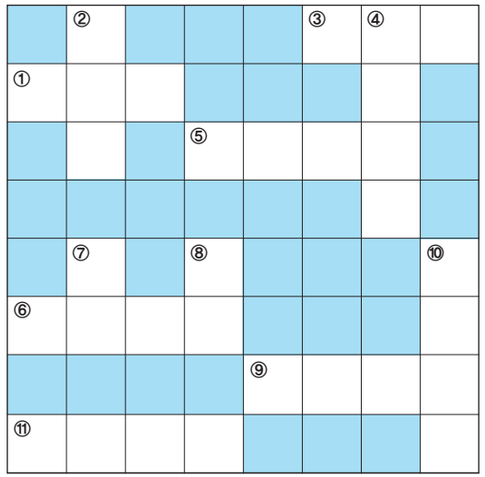
③ 닭을 대량으로 키우는 '양계장'의 북녘말. '닭목장'이라고도 한다.
예) {○○○이나} 오리공장들에서 … 앓는 짐승이 있는가를 제때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조류독감을 철저히 예방하자》(북)

④ 축구 등의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편 구역에서 공과 최종 수비수보다 전방에 있을 때 범하는 반칙. '오프사이드'의 북녘말. ○○어김.
예) {○○어김이라는} 규칙조차 모르던 때라 대방방어진에 속도가 빠른 정민을 깊숙이 박아두었다가 긴 련락의 역습으로 보기 좋게 두골을 넣어 읍팀은 예선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그해 여름과 겨울》(북)

⑤ 외래어 '아마추어(amateur)'의 북녘 표기. 북녘에서 '햇내기'라고도 한다.
예) 체육애호가, 비직업선수들을 {○○○○선수라고} 하며 그러한 선수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기대회를 … {○○○○경기대회라고} 한다.('○○○○'라는 말의 유래》(북)

⑥ 북녘에서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가령 '콜라'는 북녘에서 '코코아 ○○○○'이라고 한다.

⑦ 쌀을 한군데에 많이 쏟아 산 모양을 이룬 것을 이르는 북녘말.
예) 농업근로자들은 {○○을} 높이 쌓자고 이른 봄부터 부지런히 일하였다.《조선말대사전》(북)



⑧ 땅속 깊은 곳에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뜨거운 물질을 뜻하는 '마그마'의 북녘말. 돌이 되기 전의 액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예) 화강암이 식을 때 {○○안에} 들어 있던 여러가지 유용성분들이 암장밖으로 빠져나왔다.《백금-마그네사이트》(북)

⑨ 화면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특수 편광 안경을 착용하고 보는 '3D영화'의 북녘말.
예) 우리는 립체률동영화관에서 인기있는 새로 나온 {○○영화를} 관람하였다.(북)

⑩ 귓속에 끼우거나 귀에 밀착해 쓰는 음향 장치 '이어폰'을 북녘에서 이르는 말. 최근 북녘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이것'이 생산되고 있다.
예) {○○○○를} 낀 무전수들의 어깨는 물결치고 눈동자는 새별처럼 빛났다.《맑은 아침》(북)

⑪ 북녘에서 '혼인신고'를 달리 이르는 말. 북녘에서는 '혼인신고'보다 이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예) 지난 시기에는 매일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시청에 줄지어서서 {○○○○을} 하였지만 지금은 한주일에 20명도 되나마나하게 찾아온다고 한다.('원조'는 무엇을 가져왔는가)(북)

정 답

①문화어 ②락화생 ③닭공장 ④공격어김 ⑤아마추어
⑥탄산단물 ⑦쌀산 ⑧돌물 ⑨립체영화 ⑩귀수화기
⑪결혼등록

2023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2023년 겨레말 여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참여 방법
'프로폴리스'를 북녘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남녘말 북녘말)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3년 8월 31일까지 **당첨자 상품:** 문화상품권(5명)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2023년 봄호 독자 의견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는?

[집중 탐구] '남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
일상용어보다 남북 차이가 크다는 전문용어들을 분야별로 잘 정리해 놓으면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는 물론 남북 협력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김지현

[심상] 탐라에 스민 몽골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단일함만이 아닌 다채로운 교류를 원동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꼭지였습니다. _이충헌

언어에 담긴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언어와 역사를 잘 보존하는 활동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_김보라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심상] '거리'
제주어로 집을 세는 의존명사 '거리'가 몽골어의 '게르(GER)'에서 온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해 제주어와 몽골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_김진철

[겨레말 사람들] '잇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잘 담긴 단어 '잇다'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_이상준



친절한 남북 언어 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앱에서
남녘말 북녘말을 검색해 보세요!

'생활용어', '표기차이', '의미차이' 갈래별 어휘 검색 서비스,
카드뉴스, 겨레말TV, 겨레말 퀴즈까지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애플 앱스토어에서

'겨레말' 또는
'남녘말 북녘말' 검색

www.gyeoremal.or.kr

/gyeoremal1

@gyeoremaltv

@gyeoremalsajeon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